

## 힌두교의 신들

신영호 | 306호 인도동남아시아실 | 18:00~18:30

인도에서 탄생한 힌두교는 한 명의 창시자나 교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베다시대 이래로 수세기 동안 다양한 사상과 신들을 포섭하면서 발전해 왔다. 힌두교는 성립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많은 신적 존재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힌두교를 처음 접하는 경우 단번에 힌두 교리와 신들의 정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힌두교를 이해하기 위한 신앙체계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먼저 우주의 창조자인 ‘브라흐마Brahma’ 라는 신이 있으며, 우주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비슈누Vishnu’ 신 그리고 파괴자인 ‘시바Shiva’ 신 등 3대 주신이 있다. 이들을 통칭하여 ‘트리무르티Trimurti’ 라 부른다. 한편 힌두교의 주요 3신들에게는 각자의 배우자가 존재하는데, 먼저 브라흐마의 배우자는 ‘사라스와티’ 이며, 비슈누의 배우자는 ‘락슈미’, 그리고 시바의 배우자는 ‘파르바티’ 이다. 배우자를 통칭하는 용어가 ‘트리데비Tridevi’ 인데, 트리데비의 문자 그대로 “세 여신들” 을 뜻한다. 이들 세 여신들의 역할과 기능은 주요 3신의 속성들과 상응하여 정해져 있다. 이 밖에 힌두교의 주요 신으로는 ‘가네샤’, ‘함사’, ‘가루다’ 등이 존재한다. 힌두교의 신들은 그들이 지닌 다양한 면모만큼 복합적인 인격체로 알려져 있으며, 표현된 지물이나 자세, 장신구 등을 통해 각각의 신들이 지닌 역할과 기능이 정해진다. 힌두 신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만으로도 힌두교의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조그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힌두교의 내면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림1. 시바와 파르바티

## 테마전 <옛 중국인의 생활과 공예품>(8)

- 의례儀禮 속 음악音樂과 곡예曲藝 -

박경은 | 115호 테마전시실 | 18:00~18:30

북위대北魏代(386~534)에는 재와 같은 의례(齋會)나 행상行像(불상을 가마에 안치하고 거리를 행차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 기악 연주와 곡예, 마술과 같은 부대 행사가 열렸다. 이런 의례와 함께 거행된 다양한 공연은 인도에서 전래된 것으로, 당시 많은 구경꾼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수대隋代 582년에 조성된 이 조상비造像碑에서는 피리와 비파를 비롯한 5개의 악기(笙, 琵琶, 笛, 橫笛, 曲頸琵琶)를 연주하는 키 작은 일반인(俗人)과 무용수를, 불보살상과 공양자상과 함께 조각했다. 이는 북위대부터 불교 조상造像 완성 후 공양자들과 승려가 의례(齋會)를 열면서 치뤘던 연주가무演奏歌舞 행사를 반영한다. 이러한 공연은 불교의례에 장엄함을 더할 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는 오락적인 측면도 지녔다.

주악奏樂은 불교 의례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례나 연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대漢代(기원전 206~기원후 220) 이래로 오랫동안 여러 무덤에서는 주악이 대개 죽은 사람의 초상肖像 부근에 배치된 행렬도나 신하들의 배알도 拜謁圖와 함께 등장하거나 주악용奏樂俑으로 나타난다. 5~6세기에 조성된 남조南朝(420~589)의 등현묘鄧縣墓나 금가촌묘金家村墓의 화상전畫像塼에서는 무덤에서 벌인 나례儺禮 의식 또는 천상세계로 향하는 행렬과 함께 주악대가 등장해, 장례 의식에서의 악기 연주장면을 묘사했다.



그림 1. <불교 조상비(진씨 등 13명이 세운 조상비 陳氏合右十三人 造像碑)>, 수 개황 2(582), 높이 111.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새로운 불상의 출현, 철불

강건우 | 301호 불교조각실 | 19:00~19:30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철불鐵佛은 약 70여 점 정도이다. 동銅보다 녹는점이 높아 주조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철불은 9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철불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중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신라 하대 선종 승려들의 철불 조성이다. 왕실 및 지방 호족들의 지원을 받은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서 조성된 일련의 철불을 모본으로 삼아 지배층의 안정을 위하여 철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를 보면, 선종 승려가 대형의 철불을 조성하여 절을 수호하고, 지역 민심을 위무慰撫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흥덕왕興德王의 교서敎書(834년)도 주목된다. 흥덕왕대는 당唐의 진귀한 물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시기이다. 흥덕왕은 날로 증가하는 사치풍조를 단속하고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서를 내렸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당시 고가인 금이나 동이 아닌 철을 이용해 불상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에는 철불 조성이 장보고의 몰락과도 관련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844년 당 무종武宗의 회창폐불會昌廢佛과 851년 청해진淸海鎮의 폐지로 장보고 선단의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장보고 선단은 중국과의 해상 무역을 통한 동의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동이 부족하게 되어 지방을 중심으로 철불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그림1. 실상사 철불, 9세기



그림2. 보림사 철불, 9세기



그림3. 전 보원사지 철불, 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53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3월 8일)

## 특별전 <이집트 보물전> (11)

구문경 | 기획전시실 | 19:00~19:30

영혼靈魂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영혼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영혼을 봤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을 보지 못하지요. 고대 이집트 인들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그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바(*ba*)’라는 존재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였고, 몸은 새, 얼굴은 사람의 형태(그림1)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존재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영혼임을 알 수 있죠. 놀라운 사실은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일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가릉빈가迦陵頻伽라는 상상의 새입니다. 주로 피리와 같은 악기를 연주한다고 알려졌는데, 그림과 기와 등에서 확인되고 있죠. 불교를 받아들인 지역에서는 이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백제금동대향로(그림2)와 고창 봉덕리 출토 금동신발(그림3)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천년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날개 달린 존재가 있었다는 믿음은 똑 같았죠. 그러나 이집트의 바(*ba*)는 사람을 구성하는 일부로 여겨져 사후세계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였고, 날아다니다가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꼭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부적을 미라 몸에 지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불교와 관련된 가릉빈가나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인면조신人面鳥身은 영혼이 아니라 상상 속의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습은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상상력이 시간과 공간이 달라도 이렇게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림 1. ‘바(*ba*)’가 그려진 관의 일부(기원전 945~712년)



그림 2. 백제금동대향로의 인면조신(人面鳥身)



그림 3. 고창 봉덕리 출토 금동신발(백제)